

“나락에 빠진 군산경제 회복 위해”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군산지역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촉구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나락에 빠진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 군산, 익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지난 13일 군산지역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비롯한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앞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

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에서 실시한 신규 보조사업 사전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도민 모두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총 1,200억원을 투입하여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정비, 튜닝, 부품 공급단지 등 70,000여평 규모로, 내수 및 수출 중고차의 ONE-STOP 처리 체계를 갖춰 세계 중고차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추진 과제다.

또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출은 연간 약 36만대(약 11억달러) 수준인 것에 비해 일본은 우렌들 차량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물량이 우리나라의 4배 수준인 120만대를 수출하고 있어 군산

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은 국가적으로도 일본과의 중고차 수출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선홍 전북상협 회장은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대통령령 보고된 정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제동이 걸리는 것은 한국GM사태 청원공장의 회생에 비해 폐쇄 결정된 군산공장을 보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로운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하며 회생을 감수해 온 우리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지난 14일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론 플러스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했다.

전북 경제 활성화에 ‘앞장’

전북은행, 전북신보와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해 20억원 특별출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과 지난 14일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론 플러스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도내 소상공인,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한국GM 군산공장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특별출연 하였으며,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00억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출연은 전북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함으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해에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출연하며 도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선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고용률 60.2%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2019년 7월 전북도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4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2019년 7월 전라북도 실업률은 2.5%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15세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15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6000명(-0.4%)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9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1.7%) 증가했

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9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2000명(-3.6%) 감소했다.

가사는 19만4000명으로 1만명(-5.0%), 통학은 14만3000명으로 1만5000명(-9.7%) 감소했으나, 육아는 3만3000명으로 1000명(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취업자 및 고용률은 94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1.5%)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3%), 여자는 4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8%) 증가했다.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1만1000명(13.9%), 광공업 1만1000명(8.8%), 농림어업 7000명(4.2%)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4000명(-4.3%),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1만명(-6.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1000명(-0.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기능,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종사자 2만9000명(9.9%), 농림어업숙련자 6000명(3.9%), 관리자·전문가 1만명(6.5%) 증가했으나, 사무종사자 1만7000명(-12.7%), 서비스·판매종사자

1만4000명(-7.5%) 등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에는 비임금근로자수는 32만2000명, 임금근로자수는 61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000명(1.5%), 증가했고 이중 자영업자는 5000명(2.0%)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했다.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000명(1.4%) 증가했고 이 중 상용근로자는 1만5000명(3.9%)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5000명(-6.9%), 임시근로자는 2000명(-1.1%)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는 36시간미만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3000명(13.2%) 증가한 19만4000명,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만명(-1.3%) 감소한 7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포용국가 위한 사회적기업 간담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난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살핌과 동시에 자생력 배양을 통해 영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전북지역에는 약 270여개가 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가치가 중요시되면서 전북중기청은 (사)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기해립) 임원진과 만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소셜벤처 육성 정책, 협동조합 육성, 윈스톡기업으로 종합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의 경영에도, 향후 발전방안 등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영태 기자

필리핀에서도 족발에 소주 한 잔이 인기!

aT, 필리핀식품박람회 참가... 한국산 가공축산물 수출길 ‘활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해외박람회에서도 1580만 달러의 수출상담실적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아세안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참가한 ‘필리핀식품박람회(WOFEX 2019)’에서와 같은 수출상담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억이 넘는 인구 중 54세 이하 인구가 90%에 달하는 젊은 국가로 수입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필리핀 식약청과 국내 가공축산물 수출 검역·위생협력이 완료되어 한국산 가공축산물 수출이 가능한 국가이기도 하다.

육가공품, 주류, 버섯 등 12개 수출



업체가 참가한 한국관에서는 한국의 대표 음식 족발과 소주, 시원한 여름 음료 유자이드 등을 선보이며 필리핀 수출시장 공략에 나섰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관을 찾은 필리핀 젊은이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박람회 기간 내내 시식행렬이 이어졌다.

한국관을 찾은 필리핀 유통업체 구매담당 직원 로베르티노씨(31세)는 “한국 족발요리는 필리핀 족발튀김요리인 ‘크리스피 타파’와 비슷한 요리라 친근하다”며 “마늘, 생강 등 건강한 재료를 넣어 삶는 조리법이 한국 족발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aT 신원관 식품수출이사는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적는데 비해 필리핀의 유통

전북농협, 임실서 ‘축산환경 개선의 날’ 행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4일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과 공동으로 임실군 성수면 소재 젖소사육농가(윤은섭, 56주)를 임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악취저감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미줄 제거, 축사청소, 농장주변 경관개선, 음수통 청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매월 둘째수요일에 실시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의 일환으로, 축산 농가 스스로가 축산환경 개선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전북농협 유재도 본부장은 “장마철 우천 피해 복구 및 후서기 대비 환경정비를 중점으로 축산환경 불 조성을 위해 축협과 농가들이 스스로 앞



장서 줄 것”을 강조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설동섭 조합장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후서기 대비 축사 전기안전 및 착유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축산농가 재산보호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